

21세기 사회와 전통 문화*

한 승 옥**

목 차

1. 서론
2. 21세기 사회의 전망
3. 문화영토론
4. 전통문화의 경제적 가치
5. 전통문화의 보존과 창의적 계승
6. 결론

1. 서론

멀게만 느껴졌던 21세기가 몇 년 후로 다가왔다. 이제는 문턱을 넘어선 느낌이 들기까지 하다. 사회는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경제담론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극한 상황까지 이르렀다. 문화담론은 어느 곳에도 그 설자리를 잃어버린 초라한 신세가 되었다.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현실의 긴박함을 모르는 철부지 아이들의 이야기처럼 들린다. 국민의 모든 역량은 재화의 생산과 상품의 수출로 집약되고, 하여 달러를 벌어들여야지 만 생존이 가능한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문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것도 한국 전통문화를 문제로 삼는 것은 아이들의 잠꼬대로 들릴지도 모른다. 경제가 최우선일 때는 문화는 사치에 해당하는 것이

* 이 글은 숭실대학교 개교 101주년 기념 인문과학연구소 학술발표회(1998. 10. 29.)에서 발표된 것임.

** 숭실대 국문과 교수

고, 우선 경제가 회생되어야 문화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이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경제전쟁 또는 냉전이 끝난 후에 남아 있는 전쟁거리는 문화밖에 없다고 말한다.¹⁾ 어떤 이는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도 말한다. 이 말은 앞으로는 경제적 각축에서 문화적 각축으로 경쟁의 중심 축이 이동한다는 뜻일 것이다. 앞으로 도래하는 21세기는 경제보다도 문화가 주역을 담당할 것이고, 문화가 돈이 되는 시대가 도래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화를 모르면, 또한 문화를 이용하지 않으면 재화를 벌어들이지 못하거나, 벌어들이다라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는 말이다. 문화를 오로지 경제 논리로만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을 줄이나, 모든 것을 경제 논리에 맞춰 이야기 해야지만 되는 현상에서는 문화=경제라는 명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보는 것도 무익하지만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21세기를 간략하게 전망한 후 21세기에서의 전통문화의 가치성을 그 중에서도 경제적 가치를 예의 주시하여 헤아려 보고, 그의 보존과 계승의 문제를 검토해 보려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다.

2. 21세기 사회의 전망

20세기의 마지막 문턱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나 21세기에는 어떤 대대적인 변화가 도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하고 있다. 특히 21세기 초엽은 과거와는 전연 다른 획기적인 분기점이 될²⁾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지금까지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혼돈의 시대가 올 것이며, 과거의 관행이나 기술이나 삶의 질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새로운 규범이나 신기술로 빠르게 이행될 것이고, 이에 따른 가공할 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한 문명의 변동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는 더 이상 국경이 교류를 막는 장벽이 될 수 없게 될 것이다. 모든 세계인은 국경을 초월하여 하나의 지구가 한 단위로 정보를 교환하게 될 것이며 각 민족은 이런 와중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특히 정보 교환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정보화의 상호 순환적인 가속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인해 교통과 통신에 의한 인적, 물적, 정보적 교류가

1) 도쿄대학 총장 하스미 시게히코, <조선일보> 1998년 6월 12일 대담.

2) 심광현, 「21세기와 인문학의 발전방향-테크노/사이버문화의 지식생산/주체화 양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현대사회 인문학의 위기와 전망』 전국 대학 인문학연구소협의회, 132 쪽.

가일층 가속화되어 시공간 압축화 과정이 어느 때 보다도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인공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한 일상생활의 의존도가 확대될 것이다. 곧 테크노문화 시대, 또는 '사이버문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견된다.

과거의 산업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1차 산업혁명(증기기관과 석탄에너지 및 사진의 발명)이 본격화된 19세기 중반이래 2차 산업혁명(전기에너지와 영화의 발명)을 거쳐 오늘날 3차 산업혁명 또는 정보혁명(전자기술혁명과 디지털미디어 등장)을 거치며 21세기에 예고되는 본격적인 테크노문화(문명)의 시기로 이행, 이러한 테크노 문화의 단계에서는 문화는 과거와는 달리 소수의 개별 주체들에게 귀속되었던 고도화된(또는 천재적인) 정신적, 육체적 능력의 차원보다는 집합적 기술에 의한 능력의 형성 자체가 포괄적으로 관리, 복제, 조작되는 차원에서 이해되고 수용된다는 특징'을³⁾ 지니게 될 것이다.

사이버네틱스의 발달은 21세기 사회를 급속하게 변화시킬 것이다. 초기에는 자동제어기술에 역점을 두고 발전해 오다 오늘날에는 인공지능과 인공생명기술의 수준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과거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기계의 자동화를 가능케 하는 지식의 탐구였지만 이제는 인간의 지능 체계와 생명 체계를 탐구하여 이를 재생산해 내려는 차원으로 이동하고 있다.⁴⁾

또한 21세기에는 본격적인 멀티미디어, 영상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이는 문자 중심의 단일매체에서 이미지와 소리를 포함한 멀티미디어로의 새로운 기호화 과정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이제는 인터넷 주소만 있으면 세계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정보는 물질적 소유개념으로서의 지식이 될 수 없게 되었다. 조직이나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지식이 될 것이고, 이것을 나눔으로 해서 조직이나 구성원들 사이에 동질성이 회복되는 나눔의 과정이 될 것이다.

21세기는 20세기처럼 성장의 신화가 통하지 않을 것이다. 곧 '정체의 시대'가 온다는 예측이 다. 그 주된 요인은 에너지원의 고갈 때문이다. 에너지가 고갈되면 대량생산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시대에는 대량생산 대신 첨단 기술이 생산을 주도하게 된다. 첨단 기술은 개개인의 창의성이 바탕이 될 때 가능해진다. 21세기는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되는 첨단기술이 지배할 것이라는 예측은 이제 보편적이 되었다.⁵⁾

21세기의 민족 교육을 진단한 차석기⁶⁾의 논지에서도 이런 관점이 재삼 확인된다. 그도 21세기

3) 심광현, 앞의 글, 133쪽.

4) 심광현, 앞의 글, 135쪽.

5) 이어령, <한국일보> 1996년. 7월. 1일.

가 생산증대를 제1목표로 내세우던 궁핍 시대의 量的 논리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고도의 산업기술 시대에서 요구되는 質의 논리로 접어들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것은 곧 21세기는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해온 정치 경제 중심의 패러다임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중심의 패러다임이 새로운 지배 담론으로 등장할 것임을 예고한다. 그리고 이런 상황하에서는 분열과 융합이 문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그 구체적인 예로 이어령은⁶⁾ 유럽연합과 소련의 붕괴, 보스니아의 내전 등을 들고 있다. 문화, 역사적 동질성이 결합돼 탄생한 통합의 예로 유럽연합(EU)을, 옛 소련의 붕괴나 보스니아내전 등은 분열을 상징하는 예로 보는 것이다. 그는 분열을 자기 정체성(self-identity)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판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21세기는 복잡, 다중성, 모든 이슈의 세계화, 국경개념의 점진적 소멸, 문화우위론 등이 지배하는 세기가 될 것이며, 탈냉전, 탈산업 지식정보사회로의 이동이 예측된다. 즉 지식정보화의 괄목할만한 진전에 따라 인간, 정보, 돈, 물건 등이 자유로이 국경을 넘나들며 복합, 다중적 상호의존 관계를 극대화함으로써 세계가 하나로 묶여지면서 세계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로 직결되는 양상, 그리고 그것의 점차적인 定型화가 이루어진다는 예측이다.⁸⁾

이러한 국경 개념의 소멸화와 문화 우위론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문화의 힘이 중요시 될 것이란 전망이 가능하다. 여기서 문화의 힘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문화영토론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3. 문화영토론

문화영토론이란 한 나라의 현실적 주권이 미치는 공간의 총화로서 국가적, 정치적, 법적 개념으로 설명되는 영토만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으로 관류되고(縱軸) 문화적 시야로 포괄(橫軸)됨으로써, 종횡으로 교직되는 새로운 영토개념이다.⁹⁾

문화영토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을 지닌다.

6) 차석기, 「21세기와 민족교육」, 『21세기와 한국문화』, (나남출판, 1996), 145쪽.

7) 이어령, 앞의 글

8) 홍일식, 「문화영토론의 회고와 전망」, 『21세기와 한국문화』, 376쪽.

9) 앞의 글, 355쪽.

첫째, 문화영토론은 종래의 영토관에 도전하는 반어적 영토 무용론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영토론은 배타적이고 수직적인 영토성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문화영토론은 이와는 다르게 영토성을 벗어나 영토의 포괄적 가치와 문화체계에서 의미를 찾는 3차원적 영토 개념이다.

둘째, 문화영토론에는 문화주의가 배어 있다. 군사주권, 기술주권, 경제주권을 앞세우는 가치 충돌적 배타성을 극복하는 길은 문화의 힘이라는 신념을 드러낸 문화결정론의 입장이다.

셋째, 문화영토론은 문화적 세계주의를 지향한다. 세계주의는 초월적 역사관이 아니라, 문화적 민족주의의 내면화를 기저에 간 포용성에서 우러나온다. 하나의 꽃만으로 들어찬 꽃밭이 아니라 형형색색이 만발한 커다란 꽃동산을 꾸미자는 것이다.¹⁰⁾

하기에 문화영토론에는 무엇보다도 종래의 주권적 영토개념의 배타성, 독점성을 극복하고 그에서 벗어나 세계가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평화지향의 논리가 내재하여 있다. 서구문화의 세계 지배와 그 한계에 대한 극복의 대안이기도 하다. 문화영토론은 문명간의 만남이 갈등의 계기가 되기보다는 조화와 극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강력히 암시한다.

문화영토론의 개념 하에서는 각 문화가 개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계 문화 속에 그 가치를 평화롭게 기여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각의 개별 문화는 세계 문화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다원화된 문화 욕구 속에서 각 문화는 개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더욱 확고해 질 것이다. 자기의 민족적 집단적 정체성을 문화에서 찾으려는 성향도 뚜렷해질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로 볼 때, 21세기에는 세계의 복합 다중성, 이슈의 세계화, 국경개념의 소멸, 문화우위론 등이 지배 담론으로 등장할 것이며, 세계의 중심 축이 탈냉전시대의 지식정보사회로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문화영토론’의 전개 가능성이 한층 더 넓고 밝아 질 전망이다.¹¹⁾

미래에는 현대화된 제국주의가 땅을 탐하지 않고 대신 문화를 팔러 다닐 것이다. 이런 경향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응 논리가 필요하다. 각각의 민족이 고유의 문화를 최대한으로 신장시켜 그를 특성화하는 방안이 강력히 강구되는 이유도 이에 있다. 편협된 민족 문화가 아니라 보편적이고도 세련된 세계화된 독특한 민족 문화가 있을 때만이 문화제국주의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 그래야만 민족의 생존이 가능할 때가 도래한 것이다.

문화영토는 이제 저 멀리 있는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문제이며, 21세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창조 대상이 되었다. 한껏 자유로운 인간성의 표현의 장이 된 것이다.¹²⁾

10) 최규장, 「문화의 정치화, 정치의 문화화」, 『21세기와 한국문화』, 255쪽

11) 홍일식, 앞의 글, 373쪽.

12) 최규장, 앞의 글, 252쪽.

종래의 영토 개념을 흔들어 놓는 것은 인공위성을 비롯한 정보 고속망의 전세계적인 구축에 의해서다. 이로 인해 전 세계를 통한 기존의 영토 개념은 무력화되었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연 것은 인공위성의 발달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보다 진보된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정보의 공유화와 세계화는 더욱 급속히 진전될 전망이다. 문화의 교환 수단이 바뀜으로 인해 영토의 개념이 바뀐 것이다.

문화영토론에 입각한 다중 문화 체계에서는 문화가 대립적 사고를 풀어주는 수단이 된다. 그 좋은 예가 미국 사회다.

미국은 다중문화의 거대한 실험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민족이 한 영토 안에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지니는 장점인 동시에 강점은 여러 종족이 복합문화를 공존하게끔 선도하여 새로운 정치질서를 창조해 나간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전세계로부터 이주해 온 여러 종족이 각자의 고유문화를 미국 문화에 융합시켜 새로운 미국 문명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적 복합사회를 형성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세계문화를 창조하고 세계화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¹³⁾

미국에 정착한 이민사회에서는 용광로 이론(Melting Pot Theory)과 샐러드 접시 이론(Salad Bowl Theory)의 교차로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여할 수 있겠는지 생각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다수 종족의 서로 상이한 여러 문화가 복합문화를 용광로에서 융합시키는 것보다는 마치 샐러드 접시에 각종 채소가 나란히 놓여 있는 것과 같이 다수종족이 상호 간의 전통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복합문화의 사회를 형성하고 궁극에는 세계문화를 창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미국 사회는 믿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중언어 교육도 시도되고 있다.¹⁴⁾

앞으로 지구가 하나의 공동체로 개방되고 모든 것이 정보화 되는 과정에서는 이미 앞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각 지역의 문화는 복합문화화로 가속화될 것이다. 과거와 같이 지리적 분리에 의해 지역의 특수적인 문화가 지속되고 그에 따른 각 지역의 문화의 독자성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은 이제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 각 문화들은 빠른 속도로 서로 융합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지역으로 다양한 종류의 문화가 집중적으로 융합되는 복합문화화 현상이 등장하면서 이에 따르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정보화 과정을 주도하고 있는 서구, 특히 미국문화의 전지구적 헤게모니의 확산 및 그에 따른 각 지역 문화들의 종속 및 획일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¹⁵⁾

13) 김일평, 『21세기의 세계와 한국 문화』, 『21세기와 한국문화』, 175쪽.

14) 상 동

15) 심광현, 앞의 글, 142쪽.

특히 정보산업, 문화산업의 두 차원에서 미국의 주도는 세계시장에서의 미국의 입지를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유리한 입지는 전 세계적으로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서는 개척 상태라 할 수 있는 이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런 현상은 매스미디어를 통한 정보교류와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가속화되는 복합문화화 과정에서 미국이 계속 헤게모니를 잡고 이를 자신의 세력확장 통로로 활용케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런 미국의 주도권 장악은 각국의 민족문화나 지역문화의 특수성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가능성을 상존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문화 영역에서 영어와 미국문화, 대중문화에 대한 지식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며, 나머지 분야는 상대적 수요 부족 현상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런 현상은 우리 나라만이 아니라 미국 이외의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일반적인 진통이라 하겠다.¹⁶⁾

이런 점들은 인문학과 문화영역에서 적어도 두 가지 상반된 과제의 해결을 요구한다. 그 하나는 복합문화화 현상을 필연적인 경향으로 수용하면서 한편으로는 미국문화의 헤게모니에 맞서서 자국과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을 어떻게 보존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과제이며, 다른 하나는 문화적 특수성을 보존하면서도 동시에 미국문화 헤게모니에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전 지구적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전지구적 차원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케 할 것인가 하는 과제이다. 이와 같은 과제는 과거에는 부여되지 않았던 새로운 과제로서 단순한 경제적인 부의 분배와 정치적 평등의 달성이라는 전통적인 해결책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21세기 최대의 역사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¹⁷⁾

따라서 오늘날 지구적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문화제국주의, 문화종속의 문제만이 아니라 긴 안목으로 볼 때, 문화제국주의, 복합문화화, 더 나아가서는 민족문화와 지역문화의 상호 대립과 전위, 혼합 과정에 있어서의 복잡한 갈등의 해소와 평화적인 공존 방안의 모색이라 하겠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타의 여러 가지 노력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족 문화가 거센 세계화, 특히 미국의 주도적인 영향하에서 어떻게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개성을 고수해 나가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민족 문화가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고 나서는 복합문화의 꿈도 세계 문화에 대한 민족문화의 기여도 모두 한낱 헛된 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의 용광로 속에서도 동화하지 않는 것이 민족 문화의 결이다.¹⁸⁾ 이런 의미에서 민족은 가장 큰 문화정치 세력이라 할 수 있다.¹⁹⁾ 백암 박은식은 醜은 시들어도 醜만 있으면 나라가

16) 상 동

17) 심광현, 앞의 글, 143-144쪽.

18) 최규장, 앞의 글, 246쪽.

19) 최규장, 앞의 글, 248쪽.

일어설 수 있다고 하였다. 영토 없는 민족은 많아도 민족 없는 영토란 없다. 백 없이 혼으로 버티는 민족이 슬하다.

우리에게는 다행히 국토도 있고 민족도 있고 문화도 있다. 이제는 우리 국토 안에서의 민족 문화의 고수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시각을 세계로 돌려야 할 것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문화의 동질성과 민족 문화의 고유성 및 우수성을 지키고 보존하고 창의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외국 거주 동포가 지켜온 민족문화도 귀중한 자산이 된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이 500만 명을 육박하고 있다. 한민족의 '문화영토가' 해외에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한민족은 세계 어느 나라에 거주하여도 전통문화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민족에 비교하여 독특한 점이다.

한국에서는 근대화와 도시화로 말미암아 생활양식도 변하고 전통문화도 변하고 있었던 반면 중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은 전통문화를 일세기 동안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놀랄 만한 일이고 또 연구의 대상도 되는 것이다.²⁰⁾

해외 거주 동포를 예로 비추어 볼 때, 영토는 지표에 울타리를 친 토지 그 자체가 아니라, 민족의 삶이 발디디고 있는 문화 공간임을 실감하게 된다.

문화영토론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해외 거주 동포들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복합문화를 실제로 체험하고 그를 생활화하고 있는 민족의 귀중한 자산이라 할 수 있다. 어디 살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지니고 있는 문화가 우리의 것이냐 아니냐가 문제인 것이다. 그들이 우리 민족의 문화를 더욱 세련시켜 세계화시킨다면 그들은 우리민족에게 그만큼 큰 공헌을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문화영토론이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을 암시 받을 수 있다.

첫째 세계주의를 지향한다. 둘째 단계적으로는 문화적 민족주의를 지향한다.²¹⁾

광활한 대지 위에서 야생의 꽃들이 저마다 고유의 아름다움을 경연하며 마침내 무궁한 자기 삶을 이어갈 씨앗을 맺듯이 문화제국주의의 인위적, 독선적 문화확일주의와 문화 외적 강제를 모두 배격하고 개별 민족문화들이 유감없는 생명력을 전개해 나아갈 토양을 일구어 나가는 것이 문화영토론의 목표다. 이처럼 문화영토론은 서구의 문화 제국주의가 몰고 온 인류문명의 위기를 극복해 나아갈 대안이기도 하다.

미래의 문화영토를 보다 광활하게 개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 과제²²⁾가 필요하다.

20) 김일평, 앞의 글, 179쪽.

21) 홍일식, 앞의 글, 359쪽.

22) 최규장, 앞의 글, 254쪽.

첫째가 진취성이다. 민족적 전통은 운명이나 다름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민족의 정체성은 지울 수 없는 민족의 개성이요 뿌리다. 세계화란 서양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민족 문화가 외래 문화에 同化되는 것은 문화영토론이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 진정한 문화의 동질화는 이질 문화간에 서로의 높낮이를 맞추는 일이다. 우리의 문화가 외부에 나아가 세계화되는 것은 물론, 해외로 이주하는 동포의 이민도 하나의 문화침병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더욱이 미래의 이민은 그 나라의 문화에 융해되어 버리는 용광로형 이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문화를 지키며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문화와 복합문화를 이루는, 그리하여 양자에게 서로 이익이 되는 그런 이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이민이라기 보다는 이산 민족으로 인식하는 것이 옳다. 살기 좋은 곳이면 어디든 조국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혼이 있는 삶, 민족 문화를 지켜나가는 긍지 있는 삶만 지켜진다면 장소나 지역은 문제될 것이 없다. 이민 동포들에게는 문화 결핍증을 이겨내는 뿌리 교육이 필요함도 이에 근거한다.

둘째가 개방성이다. 대외 지향적 진취성이 문화영토의 원심력이라면 개방성은 문화영토의 축을 다지는 구심력이라 할 수 있다. 문화적 우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감 있는 개방성이 요구된다. 중국의 경우, 수 천년 동안 외국의 침입을 받았지만 외국문화는 한번도 중국을 정복해 보지 못했다. 중국의 문화적 포용력 앞에 모두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다. 문화는 나가는 것보다는 끌어들이는 것이 더 값지다. 공장은 인건비가 싼 해외로 나가더라도,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는 국내에 수용해야 한다.

셋째가 도덕성이다. 문화가 바다라면 문명은 그 위를 저어 가는 배로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문명의 발전은 인간성에 심각한 도전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인공 지능의 발달로 인간처럼 생각하는 컴퓨터가 발명된다던가, 복제인간이 만들어진다던가, 더 나아가서 작은 컴퓨터를 인간의 몸에 이식하여 반인 반기계체 초인간을 만들어 낸다던가 하면 인간의 정체성에 심각한 위기가 몰아칠 것이다.

문명에 문화가 自淨 능력을 주지 못하면 파멸에 빠질 수 있다.

통제력의 회복은 도덕의 힘에 매여 있다. 그 같은 점에서 문화의 보수성은 회복되어야 한다. 거품처럼 이는 사이버 문화를 가라앉힐 문화중력의 균형이 요구된다. 이성과 진보로부터 인간과 자연을 지키는 도덕성이 그 어느 때 보다는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와 종교의 상상력이 무너진 자리를 메우는 것이 문화의 힘이다. 아름다운 것을 아꼈 줄 아는 것이 문화력이다. 문화영토의 창조는 문화에 의한 삶의 풍요와 평화질서를 위해 깊은 의미를 지닌다.

문화는 이미 만들어진 에르곤이 아니라 앞으로 그것을 창조해 가는 에네르기여야 한다. 네트워크에 내용을 부가하는 것이 문화의 궁극적인 목표다.²³⁾

23) 이어령. 앞의 글

4. 전통문화의 경제적 가치

종래의 국력 평가 공식은 '나라의 덩치'(영토 + 인구 + 자원)와 '경제력 + 군사력 = 국력이었다. 그러나 국력 평가의 새 공식은 유형국력의 덧셈이 아니라 정보력, 전략의지 등 문화력이라는 무형국력의 곱셈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국력의 핵심이 하드파워에서 소프트파워로 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프트파워는 첫째, 양도할 수 없고 눈에 띄지 않으며 강제성이 덜한 무형의 힘이다. 둘째 소프트파워는 채찍과 당근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강권력과는 달리 문화적 매력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돌려놓을 수 있는 힘이다.²⁴⁾

국력은 다른 말로 하면 권력이란 의미에 다름 아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력, 곧 국제간의 권력은 이념과 제도를 포함한 모든 문화력의 총화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곧 국제사회의 질서와 게임법칙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한 나라의 보편적 문화능력이다.

이제는 코카콜라가 어떤 무기보다도 더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보아도 코카콜라가 없는 곳은 없다. 세계를 점령한 것이다. 햄버거도 마찬가지다.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 햄버거가 이미 세계를 지배하고 있음을 목격하게 된다. 과거 철의 장막을 뚫은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청바지였다. 록뮤직은 소련의 비밀경찰의 막강한 힘보다도 더 강했다. 미국 영화 타이타닉은 전세계를 휩쓸며 문화산업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실감케 했다. 이제는 문화가 권력이 되고 돈이 되는 세상이 되었다.

여기서 제기되는 것이 첫째, 문화의 상품화이다. 그것은 문화의 경제 전쟁 수단화 현상이다. 제품을 문화로 포장하고 문화로 날개 달아 비싸게 팔자는 것이 경제전략으로서의 문화다. 상품이 배라면 문화는 등대라고 떠든다. 프랑스 향수에는 프랑스 문화에 지불하는 높은 값이 포함되어 있다는 발상이다.

둘째는 문화 그 자체가 상품인 경우이다. 제조업은 문화상품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다. 한편의 영화가 올린 수입이 한국 자동차 3사의 총수입보다 크다고 열을 올린다. 기업이 영상산업에 나서고 공연장과 미술관을 짓고 문화상품을 만들어 판다.

셋째는 기업의 문화 러시와 함께 정부가 문화를 앞세우고 나서는 점이다. 문화부 없는 정부는 드물다. 정부의 문화정책은 문화산업을 다그친다. 해외 공관장 회의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문화카드처방이란 말이 거침없이 나온다. 문화정책이 문화통제를 위한 기제로 쓰인다. 문화를

24) 최규장, 앞의 글, 240쪽.

과는 경제문화의 경향과 맞물려 문화의 정치화는 피할 수 없다. 국부론 대신 문화부국론을 앞세운 신문화 중상주의가 꿈틀거리고 있다.²⁵⁾

이제는 문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팔 수 없는 때가 도래하였다. 문화는 개인의 창의력과 개성을 중시한다. 21세기에는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적인 창의와 감동을 팔고 시는 '감동 산업'이 중심이 될 것이다.²⁶⁾ 감동은 지금까지는 문화예술의 고유영역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치가나 기업인도 대중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면 도태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앞으로의 세기는 문화의 세기이고, 문화주의 시대라 할 수 있다. 문화주의 시대는 그러나 이기적인 자기만의 독선을 거부한다. 이때의 문화는 利他利己의 경계를 뛰어넘는 相生적인 것이어야 한다. 비록 문화계국주의가 일시적으로는 전 세계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려 하겠지만 우리는 그에 맞서는 강력한 민족문화를 키워 그에 대응하는 문화 대응 전략을 펼쳐야 한다.

문화적 대응력을 키운다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다.

21세기의 교육전망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들은 경제 사회적 측면과 과학과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따른 정보량의 급증, 다양한 삶의 방식이 표현되고 있는 특정 민족 문화 등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근대화를 지향한다는 미명하에 개성을 말살하고 개인을 정형의 틀에 맞추어 왔다. 어느새 개성을 말살하는 삶의 균질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무개성, 무차별의 정형화된 삶의 패턴 하에서는 더 이상의 문화적 창조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 잘살아 보자의 구호를 외치며 그 동안 근대화를 지향한다는 미명하에 형성된 사회 전반에 걸친 '균질화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과 다른, 보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창출이 요청된다. 이러한 창의적 문화의 창출은 민족의 고유한 문화 속에서 찾아질 수 있다.²⁷⁾

지구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지는 지구촌화(Globalization)시대의 교육관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도 이에 있다. 이제는 교육도 나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어 지구 곳곳을 이해하는 거시적인 이해로 그 지평이 확대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세계 변화라는 시대 흐름을 민감하게 파악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속한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각 지역의 문화적 독특함과 다양함을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어야 한다. 이런 교육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자신이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유산에 대한 재조명과 고도의 문화상품을 창출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유형적 자산(토지나 화폐 등)과는 다른 무형적 자산, 그러면서도 고부가가치의 가치를 지닌 상품성을 창출할 수 있다. 민족문화 교육은 이러한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한다.²⁸⁾ 미래는 민족의

25) 상 동, 242쪽.

26) 이어령, 앞의 글.

27) 차석기, 「21세기와 민족문화 교육」, 『21세기와 한국 전통 문화』 153쪽

독창성과 창의력이 곧 국력²⁹⁾인 시대이다. 예술적 충동이나 창의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국민의 잠재된 자원을 캐어내어 문화상품을 만들어 내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상이 남긴 자랑스러운 각종 ‘향토 지적 재산’을 세계화시켜야 한다. 향토 지적 재산의 세계화 운동이다.³⁰⁾

향토 지적 재산이란 민족 고유의 기술과 문화를 바탕으로 전승 발전되어 경제적 경쟁력을 갖춘 지적 창작물을 일컫는다. 이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고유한 전통문화를 배경으로 한 지적 재산이고, 특정 지역의 주민의 삶 속에 뿌리를 내려서 향토적 냄새가 물씬 나는 무형자산들이다. 이런 무형의 자산들이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전환될 때, 전통문화의 경제적 가치는 극대화된다. 여기에서 고유성 또는 문화유산성은 민족 내부의 전통적 기준뿐만 아니라 대외적, 국제적 기준, 즉 세계화의 기준이 잣대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민족 고유성, 문화유산성, 향토성 및 경제성을 고루 갖춘 향토지적 재산은 지역 특산품이거나 천연기념물일 수도 있고, 전통 고유기술이나 비법일 수도 있으며 관광문화상품일 수도 있다.

전통 고유의 특산품은 민속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의식주 안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내용뿐만 아니라 제조 비법인 기술도 민속적 의식주 제조기술 안에 무수히 존재한다.

식품분야만 보더라도 전통 발효식품 김치, 된장, 간장 등 이미 세계화된 식품들이 있다. 단지 유감스러운 것은 일본을 통해 이들 식품이 알려졌다는 점이다. 이 점은 우리가 기술력이 그만큼 뒤떨어졌고, 세계를 보는 눈이 그만큼 뒤졌다는 의미가 되며, 세계인의 기호 파악에 너무 어두웠다는 의미도 된다.

특히 기술적인 면에서의 혁명이 이루어져야 우리 것의 세계화가 보다 촉진될 수 있다. 이제는 장인의 개인적인 신비의 비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장인의 비법을 도의시하거나 말살하자는 말은 아니다. 이들이 보호되고 계승되어야만 귀중한 민족의 자산은 전승될 수 있다. 단지 이러한 비법들을 지닌 주체들에 의해 경험적으로 생산되는 특수한 작업 능력에만 오로지 의존하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특수한 능력이 일반화, 보편화되기 어려웠다. 장인의 비밀스런 ‘기능’(techne)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었고, 그 자체로 존재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근대적 지식은 이러한 신비한 능력이 체계화, 일반화, 추상화되어 목적 지향적으로 조작, 관리됨으로 해서 비로소 ‘기술’(technology)화될 수 있었다. 민속적인 비법도 이러한 기술화를 거쳐야 비로소 세계적인 상품화가 가능해 질 것이다.

28) 상 동

29) 이어령, <한국일보>, 1996년 7월 1일.

30) 송상현,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시론」, 『21세기와 한국문화』, 68쪽.

우리 민족에게 전래되어 내려오는 민속적인 의식주에는 그것들을 기술화시켜 상품화하면 훌륭히 세계화시킬 수 있는 품목들이 의외에도 풍부하다.

우선 음료만 보더라도 민속음료인 식혜나 수정과, 미숫가루, 대추차, 오미자차, 설록차 등 이루어질 수 없이 많다. 설록차가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의학적 실험 결과가 세계에 알려지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서양인들은 콜라를 버리고 설록차를 마시기 시작할 것이다. 인삼이 영양으로 암을 예방하고 스테미너를 증진시킨다는 사실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이제는 세계적인 식품이 되었듯이 우리의 전통 음료가 세계를 석권하지 못하라는 법이 없다.

술만 해도 우리에게 민속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수많은 가양주들이 있다. 얼마 전 독일에서 나오는 소주를 맛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각 지방의 비법으로 증류과정을 거쳐 만든 우리의 전통 소주와 비슷한 것이었다. 독일에서는 고가품으로 팔린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의 민속적인 소주가 세계인의 기호에 맞기만 한다면 우리의 술도 고가품으로 팔릴 때가 머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주생활만 해도 우리의 온돌 문화는 세계적인 것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너도나도 온돌방에 침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우리의 온돌 문화가 일본이나 독일에서 상품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된다. 그 동안 우리 것을 너무나 폄하 하였고 홀대하였다는 것을 깊이 반성하여야 한다. 이런 논리는 우리 민속 전 영역에 걸쳐 모두에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의생활에서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은 이미 세계적 찬탄으로 확인된 바 있으며, 민속 토산품은 관광 상품으로 각광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개발여하에 따라서는 무수히 많다.

주생활, 의생활, 식생활, 지역특산물, 관광문화상품, 민속토산품 등 우리가 지금까지 쳐다보지도 않았던 민속적인 것들이 고부가가치의 세계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깨달아 이들의 보존과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자산이 전래설화나 민담 등도 가치 없는 옛날 이야기로 홀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의 세계적 상품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본다. 이야기도 스토리 상품으로 고부가가치의 문화상품이 되는 예를 우리는 미국의 월트 디즈니에서 본다. 미국의 월트 디즈니사가 옛날 백설공주보다 훨씬 재미있게 공들여 만든 만화영화를 세계적인 상품으로 시장에 내다 팔고 있는 것이 그 예다. 알라딘,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등은 이미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의 영화들을 각색하여 영화로 만든 것들이다. 이들 상품은 영화로 수익을 올릴 뿐만 아니라 비디오로 판매됨은 물론이요 개발한 캐릭터를 응용하여 문구, 학용품, 완구, 의류, 신발 등등에서 무궁무진한 상업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로 볼 때, 우리 나라에서도 전래동화나 설화를 고도의 기술로

아이디어 화하여 세계시장을 겨냥한다면 충분한 상품성이 기대된다. 최근에 고전 작품인 홍길동이 만화와 TV연속극으로 리바이벌 되었고, 캐릭터로도 인기를 끌어 젊은 층은 물론 어린이들에게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주었음을 상기할 때, 이러한 꿈은 결코 환상에만 그칠 일이 아님을 실감케 한다.

민족 문화, 특히 민속 문화의 경제성을 실례로 들자면 한도 없고 끝도 없을 것이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풍부한 자산을 어떻게 고부가가치의 상품으로 만드느냐의 일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첨단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과 전통문화 사이의 문지방 넘기'³¹⁾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은 대립관계로 생각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두 관계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관계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전통과 첨단 양자택일이 아니라 이 둘이 서로 합쳐 고도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양자합병의 시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21세기 사회에서의 세계와 지역은 대립적 개념이 아니라 조화의 관계이듯이, 전통문화와 첨단기술도 역시 적대관계가 아니라 상생의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하는 필연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21세기는 이와 같이 개성적인 문화가 고도의 기술과 결합하여 세계적인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창출하는 새로운 경제체제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리라 전망된다. 문화의 경제 논리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것이며, 문화 우위 현상이 지배적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문화는 이제 더 이상 삶의 副次적 요소가 아니라 主要 바로 그것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단일 산업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산업은 제조업이 아니라 문화 레저 산업이라는 분석이 나온 지는 오래되었다.³²⁾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비롯하여 각 민족의 문화상품이 전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현재보다도 앞으로 그 속도는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첨단 기술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겠지만, 그 내용이 될 문화, 특히 전통문화의 보존과 창의적 개발에 민족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5. 전통문화의 보존과 창조적 계승

전통 문화의 보존과 창의적 개발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청되는 차체에 최근 30여 년간 절대적인 빈곤타파를 위한 경제발전 제일주의의 정책과 그에 따른 고도의 산업화 과정을

31) 이어령, '과학 기술 문화 창달을 위한 심포지엄 기초 강연', <한국일보>, 1997년 11월 18일.

32) 홍일식, 앞의 글, 371쪽.

급속하게 가치면서 전통 고유 기술과 민속문화유산들이 방치되었거나 천대를 받아서 결국 절멸되었거나 기능보유자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경우가 대부분인 것³³⁾ 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우리 것의 귀중함에 눈 돌리지 못하고 세계화란 미명하에 밖으로만 목을 빼고 외세 추구에만 몰두하여 왔다.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약삭빠른 부모는 어린아이들을 외국어학원으로 내몰고 초등학교에서도 영어를 가르친다고 법석을 떨고 있다. 조기유학이 필요하다고 하여 겨우 부모의 정을 알 만한 나이의 자녀를 미국으로 떠나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기껏 좋게 봐준다 하더라도 개인을 국제적 틀에 맞추겠다는 준비운동이거나 몹시 피동적인 몸부림에 불과하다. 넓어진 세상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어울릴 수 있게 하는 개인적 실력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독자적인 모습과 능력, 가치를 보여 줄 수 있어야만 진정한 세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우리의 문화를 배우고, 그를 아끼고 보존해야 하며 발굴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우리는 좀더 능동적, 범국가적으로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우리 내부에서 시작하여 전세계로 뻗어 가고 살아남을 수 있는 확고한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³⁴⁾

민족 재생의 확고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이며, 또 어떤 문화유산들이 가치가 있으며, 우리가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가치적인 것이 어떤 것들인지 냉철히 따져보아야 한다.

이제까지 우리가 배워 온 것은 고구려의 웅건함과 백제의 우아함, 그리고 신라의 화랑도 정신 등이며, 고려 시대의 은은한 비취빛 청자와 도저한 불심과 민족의 끈기의 산물인 팔만대장경, 그리고 조선시대의 단아한 백자 등이었다. 이들 문화적 유산이 과연 그러한 이름에 합당한 것인지 한 번쯤 진지하게 반성해 보자는 것이다. 이때 경계하여 할 것은 우리 것을 신성시 한 나머지 그것에 대한 물신숭배화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는 또 다른 오류를 낳게 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러한 물건이나 역사적 사실들이 한국의 문화재라는 기정사실의 확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화재를 만들어 낸 문화 창조적 정신이 어디에 있으며 그 본질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일이다. 곧 ‘창조 정신’³⁵⁾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무엇이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 내게 하였는가에 대한, 그리고 이러한 문화재 속에 들어 있는 한국인의 민족문화 정신은 무엇인가에 대한 치열한 탐색이라 하겠다. 이러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반성이 없이 단순히 사물의 나열만으로 민족문화를 바라본다면, 다른 외국 문화재의 규모와 거대함과

33) 송상현, 앞의 글, 78쪽.

34) 송상현, 앞의 글, 67쪽.

35) 차석기, 앞의 글, 156쪽.

양의 방대함이라는 즉물주의의 힘에 우리의 논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말게 된다.³⁶⁾ 만일 우리 민족이 값진 문화재를 창조한 원동력이 된 창조적 힘을 우리의 문화 유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그 힘의 원천으로 말미암아 어떤 외부적인 양적 대응 논리에도 당당히 맞설 수 있게 되며, 그를 토대로 새로운 민족 문화도 창출해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전통은 인습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인습은 버려야 될 유물이지만 전통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창조의 원동력이 되는 힘이다.³⁷⁾ 우리는 버려야 할 유물과 창조적 원동력이 되는 전통과를 잘 구분하여야 한다. 버려야 할 인습은 과감히 청산하여야 하며, 계승 발전시켜야 할 전통은 현대화시키고 재생시켜 새로운 민족의 활력소로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는 새롭게 조명하여야 할 '창조의 힘'으로서의 전통적 요소로서 '두레'와 '멋'을 살펴보기로 한다.

두레는 한국의 전통문화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다. 두레는 지금까지 농어촌의 생산을 위한 공동체 및 노동조직으로만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두레는 이런 노동 공동체, 생산 공동체적 성격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격을 복합적으로 구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³⁸⁾

두레의 유래는 고대의 씨족 공동사회에서 찾은 견해가 많다. 삼한시대에 농사의 시작과 끝에 행하던 움주기무가 두레의 모습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두레는 지역 공동체의 호칭이었다가 차츰 인위적 공동체로 변하여, 근로단체, 군사단체, 도의단체, 공제단체, 신앙단체, 경기단체 등의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토지 소유형태면에서는 토지가 촌락 공동체 즉 두레에 속하였으므로 공동경작, 공동분배를 하였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³⁹⁾

두레는 평화로운 시대에는 농어촌에서 농사일을 하는데 공동체적 역할을 하였으나, 일단 전쟁이나 재난이 닥쳤을 때는 공동으로 이를 방위하고 극복하는 데 앞장섰던 조직이었다. 공공 건물, 우물, 다리, 수로, 축대, 제방 등 공동체적 결집이 필요할 때는 두레가 앞장서서 이를 수행하였다. 두레 구성원들은 자녀들의 학습을 위해서 서당을 세워 훈장을 초빙하기도 하였고, 장유유서가 엄격히 지켜짐으로 해서 위계질서가 잡힘은 물론 어른의 엄격한 행위가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교육됨으로 해서 교육 공동체 역할도 하였다. 구성원들이 병에 걸리면 간병을 돌아가며 하였고, 방역을 비롯하여 전염병 퇴치에도 전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앞장섰던 조직이었다.

36) 차석기, 앞의 글, 157쪽.

37) 조지훈, 「전통의 현대적 의의」, 조지훈 전집 6권, (일지사, 1973), 313쪽.

38) 서연호, 「축계의 현실과 미래를 위한 모색」, 『21세기와 한국문화』, 83쪽.

39) 상 동

그러나 정작 두레가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것은 이들 행위나 역할들이 일이나 공동체적 집단 노동에 머물지 않고 항상 축제적인 놀이가 함께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두레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모든 마을 주민이 함께 놀고 함께 연회하였으며, 이러한 유희들은 세시풍속으로 미미하나마 지금까지도 전승되고 있음을 볼 때 두레의 생명력은 가히 끈질기다 하겠다. 두레는 노동 뿐 아니라 세시풍속으로 풍요를 기원하고 풍년을 감사하는 의식으로 굳어졌다. 두레는 연회를 포함한 풍요제나 신성한 의식이었기에 마을의 축제적 의미와 함께 신성한 종교적 제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두레와 축제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두레문화가 축제문화로 상징⁴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바흐친은 축제를 카오스의 혼돈이 아니라 이를 통한 생성의 원동력으로 보았다. 축제는 그것이 소비적인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풍요가 약속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레의 양면성은, 곧 일의 측면과 놀이의 측면이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음양의 양면처럼 상호보완적이라는 점에서, 또한 그것이 우리 문화의 건강성과 자생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중요한 전통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인정된다 하겠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혼돈과 혼미로 가득차 있다. 모든 분야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우리에게 진정한 공동체 의식도 존재하지 않고, 또 진지한 놀이 문화도 계승되거나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는 과거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낸 저력이 잠재되어 있다. 또한 우리 민족은 우수한 민족문화를 수없이 창조하였다. 어떠한 고난에도 굽히지 않고 그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섰다. 거기에는 이러한 두레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어려움에 무릎을 꿇을 것이 아니라 두레의 창조정신을 되살려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21세기의 고도의 정보, 지식사회에 도약적인 발전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은 일찍이 풍류와 멋을 즐겼다. 우리 민족은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마음의 浩然之氣를 길러 왔다. 우리 민족에게는 남다른 미에 대한 의식이 있다. 그것을 일컬어 '멋'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조지훈은 우리 민족의 멋을 미의식과 결합시켜 우리 민족만의 독특한 멋의 범주를 설정한 바 있다.⁴¹⁾ 그는 우리 민족의 미의식을 형태미, 표현미, 정신미로 삼분하여 살피고 있는데,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形態美로서의 멋의 특성이다. 멋의 형태미적 특질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非整除性이

40) 상 동.

41) 조지훈, 「'멋'의 연구-한국적 미의식의 구조를 위하여-」, 조지훈전집 7.(일지사,1973) 10쪽.

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계산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데 멋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한국의 멋은 정상, 정규에서 일단 벗어나 규격에 맞아떨어지지 않는데 있다는 생각이다. 음악에서 산조가 그 예라 하겠다. 다음으로 多樣性을 들 수 있다. 단조하고 평평하고 무미한 것이 아니라 탈출과 미묘한 변화, 곧 일탈에서 미감을 느끼는 것이 우리 한국의 멋이다. 멋의 형태미로서 제 3에 해당하는 것이 律動性이다. 한국의 멋이란 일종의 생동미다. 만들어진 다음에 보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과정의 변화에서 즐기는 멋이다. 이것이 울동성인 것이다. 무용이나 음악에서 빠르던 가락이 문득 푹 그치고 잠깐 쉴 때 끊어진 여운에 아직 새로운 소리가 이어지기 전, 그 침묵이 몽환적인 멋을 준다. 다음으로 曲線性을 들 수 있다. 곡선미는 우리의 멋을 한껏 뽐낼 수 있는 우리만의 고유한 미다. 무용, 음악에서 뿐만 아니라 공예품이나 회화에서도 현저히 나타나는 미적 특성이다. 곡선 중에서도 현란한 곡선이 아니라 직선의 변화로 휘어져 넘은 은은한 곡선과 반월형(半月形)의 선이다. 우리 건축의 지붕과 부연 뻗 추녀의 날아갈 듯한 선, 장롱과 가구에서는 물론 저고리의 깃과 소매 끝, 버선의 코와 뒤꿈치, 태극선 그림의 청, 홍, 황이 서로 물린 머리 모양 등은 활처럼 매끄럽게 휘어진 선을 자랑한다.

둘째 表現美로서의 멋의 특성이다. 제1로 非規格性을 들 수 있다. 멋을 창조하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규격을 마스터하는데 그쳐서는 안되며 그것을 뛰어넘어야 비로소 멋이 가능해진다. 멋내다, 멋부리다, 멋지다 할 때의 멋은 바로 이러한 규격을 뛰어넘었을 때 느껴지는 미감들이다. 멋의 표현미로서 두 번째 특질은 歪形性이다. 정상적인 상태나 정규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약간의 왜곡이 형성될 때 우리의 멋은 창조된다. 전립이나 초립을 비스듬히 또는 삐뚤름하게 쓰는 것을 비롯해서 멋을 부린다는 것은 정상의 규격을 잘 다듬어 놓고 어딘가 한 구석에 짐짓 왜형의 변화를 두는데서 우리의 멋은 나타난다. 다음의 특질로 들 수 있는 것이 玩弄性이다. 이 완롱성은 원숙에서 나오는 잉여성이며, 왜곡에서 나오는 해학성이 바탕이 된다. 다시 말하면 여유와 유희의 기분에서 우러나는 미인 것이다. 음악에서 소리를 구성지게 하고 휘이고 꺾고 흔드는 것에서 멋을 느끼게 되는 것은 거기에 弄이 있기 때문이다. 완롱성의 발휘된 것이다. 이 완롱성이 문학에서 해학, 풍자, 재담, 익살 등으로 나타난다.

셋째 精神美로서의 멋의 특성이다. 정신미로서의 멋의 특성 중에 가장 먼저 꼽아야 할 것은 非實用性인 것이다. 순수한 미적 충동이란 본래 실용적인 것은 아니다. 그릇에 그림을 그려 넣는 다거나 은장도에 조각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비실용성에 바탕을 둔 미의식의 발로다. 그러나 이러한 비실용성은 무르익은 기술행위와 정신적 열락이 어우러져야 가능한 것이다. 목재에 못을 박는 목수의 망치질 사이에 들어가는, 까닭 없고 필요도 없는 곳을 딱딱 두드리는 헛망치질의 멋이라든가, 이발사가 머리 깎을 때 간간이 허공에 들고 짹짹거리는 가위소리의 멋내

기 등은 하등의 실용성이 없는 행위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기술의 완숙에서 오는 멋인 동시에, 호흡과 장단을 맞추어 그 기술행위의 진행을 조정해 주는 효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필요 이상의 사치가 빚어내는 열락은 노동의 울적함과 적막함을 순간적으로 달래주고 그를 이겨내는 멋들어진 행위들이다. 두 번째가 和同性이다. 한국의 멋은 화락이 이루어질 때 흐드러진다. 衆俗이 어우러지고, 희로애락이 화동하여 중용을 잃지 않을 때, 우리의 멋은 창출된다. 이 격이 깨어지면 멋이 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멋쩍다, 멋없다고 하는 것은 중용을 잃었을 때, 곧 격에서 벗어났을 때 하는 말이다. 중용은 균형과 조화이다. 우리의 미가 일탈성, 비정형성, 다양성을 그 특성으로 하지만 거기에는 조화와 균형이 항상 격으로 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깨어지면 모든 것이 조잡하고 속된 것이 되는 것이다. 멋의 정신적 요소의 마지막은 樂天性이다. 멋의 구경의 마음자리는 낙천성이다. 이 낙천성은 조화와 절도를, 성실과 유락(愉樂)을 바탕으로 하고, 유유자적하는 자연의 생활, 고고불기(孤高不羈)하는 自在의 경지를 말한다. 바로 호연지기의 풍류의식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우리 민족의 미의식인 멋의 특질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미의식은 우리만의 독특한 것이기에 앞으로 이를 살려 나가고 보존 계승하여 세계에 알려야 할 것이다. 우리 멋의 고유성과 우수성을 세계에 표방하고 이를 상품화하여 고부가가치를 획득해야 할 것이다. 외국 관광객이 우리의 전통미에 황홀한 반응을 보이고 찬탄을 금치 않는 것을 보면 우리 멋의 세계화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미의식 곧 '멋'이 소중한 가치로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 다시 자리잡게되고, 이를 바탕으로 '창조적 힘'이 발휘될 때 진정한 민족의 재도약은 이루어 질 것이다.

6. 결 론

필자는 지금까지 21세기에서의 전통문화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21세기에는 국경이 없어지고 지구가 한 마을이 되는 지구촌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에서 볼 때, 문화영토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는 것이며, 문화영토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신장시키고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함을 결론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이제는 동양과 서양의 구분이 없어질 때가 되었다. 아니 서양이 동양을 배우러 올 때가 되었다는 말이 더 정확할 지도 모른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과도하게 서구편향성을 보여왔다. 과학기술의 미숙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제 우리는 기술적인 것은 서구에서 배워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신적인 것, 곧 문화적인 것을 잘 보존하고 그를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우리만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족문화의 변별력을 키워야 하고 우리만의 독특한 개성과 미의식을 살려 창조적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세계에 알려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에서 추출된 '창조적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1세기 사회에서 전통문화가 해야 할 역할이 막중해지는 이유와 필연성은 이에 있는 것이다.